

(2) 우리말 바로 쓰기

학습 목표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글 맞춤법 규정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생각 열기 /

- 다음 상황에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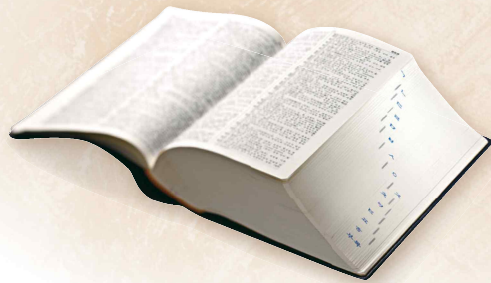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

우리말 바로 쓰기

이선웅 · 정희창



¹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잘못해 혼이 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받아쓰기가 어려웠던 것은 “달기 모이를 먹꼬 이썴요.”라고 읽는 말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이유가 있었다.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데, 그 일정한 규칙을 잘 몰랐던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이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 닭이 모이를 먹고 있어요.

나 달기 모이를 먹꼬 이썴요.

우리는 **가**는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로 생각하고, **나**는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로 생각한다. 그런데 말로 할 때에는 **가**와 **나** 모두 [달기 모이를 먹꼬 이썴요.]로 소리 난다.

여기서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에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말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말을 바르지 않게 한다고 해서 맞춤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² 총칙의 제1항을 보자.

이선웅(1969~)

국어학자. 주요 저서로 『한국어 정서법』, 『한국어 문법 총론 1, 2』 등이 있다.

정희창(1968~)

국어학자. 주요 저서로 『한국어 정서법』,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있다.



1 한글 맞춤법 한글로써 우리 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가 확정·고시한 것이다.

2 총칙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¹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받아쓰기를 어렵게 했던 규칙이 바로 ‘어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한글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 한국어 사용자라면 ‘책을 읽는다.’와 ‘교과서를 읽어라’의 ‘읽-’이 같은 말임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는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읽-’이라는 같은 표기로 적었기 때문이다. 만약 ‘소리대로’의 원칙만 있었다면 ‘채글 잉는다.’와 ‘교과서를 일거라.’로 적었을 것이고, 읽는 사람은 ‘잉’과 ‘일’이 같은 말임을 알기 위해 한참을 생각했을 것이다. 말로 할 때 ‘채글 잉는다.’와 ‘교과서를 일거라.’로 해도 문제없이 알아듣는다면 글로 이와 같이 써도 역시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알아는 보겠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잉’과 ‘일’처럼 환경에 따라 표기가 바뀌는 것보다 고정된 표기인 ‘읽-’으

1 어법 말의 일정한 법칙.



로 적을 때 그 뜻을 알기 쉽다. 자, 이쯤 되면 받아쓰기 시간에 혼이 좀 난 게 그리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읽어, 읽는, 읽자

라 일거, 잉는, 익짜

- ☒ 이제 [일거], [잉는], [익짜]로 소리 나는 말을 적는 방법은 **다**와 같이 ‘읽어, 읽는, 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말로는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글로 적을 때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잉는]으로 나는 소리는 ‘읽는’으로 적어도 되고, ‘잉는’으로 적어도 되고, ‘익는’으로 적어도 된다. 이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읽는’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드는 법칙이 위에서 말한 ‘어법’이다.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를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는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 한글 맞춤법에서 ‘어법’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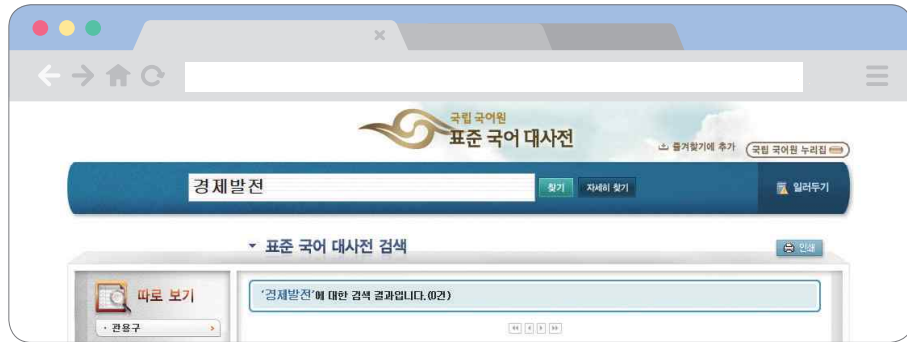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 ☒ 한글 맞춤법의 규정 중에 띄어쓰기가 있다. 띄어쓰기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문헌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전문가들조차도 종종 잘못 끊어 읽곤 한다. 물론 우리는 모두 ²모국어와 관련하여 자못 정확한 ³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을 잡수신다.’를 ‘아버지 가족을 잡수신다.’처럼 잘못 쓰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 ☒ 또 띄어쓰기가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경제’라는 단어가 있고, ‘발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즉 국어사전에 두 단어가 따로따로 실리지만), ‘경제발전’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즉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으므로) ‘경제 발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또 ‘굽다’와 ‘먹다’는 각각의 단어로 존재하지만 ‘구워먹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구워 먹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한국

? ‘경제발전’, ‘구워먹다’와 같이 붙여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모국어 자기 나라의 말.
3 직관 판단이나 추리 등과 같은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



▲ '표준 국어 대사전' 누리집에서 '경제발전'을 검색한 화면이다. '경제발전'은 한 단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의 경제발전', '오징어를 구워먹다'에서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큰 잘못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 안 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2항을 보자.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란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각 단어는 그 성질에 따라 품사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라는 용어는 품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마 아,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바 둘 모두가 착한 학생이다.

마에서 '아'는 감탄사, '그'는 '선생님'을 꾸며 주는 관형사, '선생님'은 명사, '나'는 대명사, '정말'은 부사, '사랑하시는구나'는 동사인데, 이들 모두를 서로 띄어 쓰고 있다. 한편 바에서 '둘'은 수사, '모두'는 명사, '착한'은 형용사, '학생'은 명사인데, 역시 각각의 말을 서로 띄어 쓰고 있다.

1 품사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국어에서 용언(동사, 형용사)은 ²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할 때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따라서 ‘사랑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사랑하-’에 붙는 어미 ‘-시-, -는구나’와 ‘착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착하-’에 붙는 어미 ‘-니’

☞ 은 그 앞의 요소와 띄어 쓰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마**와 **바**의 띄어쓰기를 거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글 맞춤법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의 말에 붙여 쓰는 특수한 부류에 속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목적격 조사 ‘를’을,

180 **바**에서는 주격 조사 ‘가’와 서술격 조사 ‘이다’를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있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무엇이 조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면 서도 붙여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다. 우리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될 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알고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 이선웅·정희창,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

2 활용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꿈. 또는 그런 일. 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형태를 이른다.

